

함께하는 복음 묵상

루카 6, 17.20-26 (2025/2/16, 연중 제6주일)

저의 사제생활 10주년을 거창하게 느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러저러한 일들로 힘들었다고 설명하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실수와 잘못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 인정받을 만하다고 여긴 일에 대해서는 매우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나를 좋아해주고, 기쁨을 더해주는 일들에 집중하였습니다. 불편한 말이나 언짢은 일에 쉽게 흥분하고 화를 내어 상처를 준 일도 많았습니다.

10주년을 축하하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 가운데 "쉽게 흥분할 때가 있다."라는 따끔한 조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틀리지 않은 그 지적에 잠시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주 잠깐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편지를 받을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지금 같은 마음을 진심으로 여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올 한 해 저의 목표는 화내는 일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웃에 밝힌 제 모습이 부끄럽지만, 보듬을 드는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저의 행복은 미사를 드리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너무도 행복해서 가능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늘나라를 매 순간 지금보다 더욱 자주 그리워하도록 저를 잡아주소서.
아멘.

삶을 들여다 보고 나누기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해보고 같이 나누시길 권장합니다.

- 1) 일상 안에서 언제 행복을 느끼나요? 그 행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2) 예수님께서서 오늘 '참행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느끼는 행복이 '참행복'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참행복'은 어떠한 것일까요?